

theme 1000億

벤처 천억 클럽

벤처 성공 신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다

2006년 벤처기업 1만 70개(2월 말 기준). 벤처기업 곳곳에 훈풍이 감돌면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벤처 신화와 도약을 선포하기 위해 '벤처 천억 클럽'이 결성되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78개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벤처 천억 클럽'이 창조와 도전으로 제2의 벤처 신화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해 본다.





1 2



3 4



- 1 출범식에 참석한 38개 벤처기업 대표와 중기청장의 기념 컷
- 2 천역 클럽 기념패를 전달하는 이헌재 중기청장
- 3 천역 클럽 회장으로 추대된 휴맥스의 변대규 대표
- 4 벤처기업에 격려사를 전하는 이헌재 중기청장
- 5 KBS와 인터뷰 중인 조현정 회장
- 6 행사장 전경과 출범식의 다양한 모습



5 6



7



8

interview

‘기업가 정신’을 공유하는 벤처 도약의 모임으로 만들 터 벤처 천역 클럽 회장 변대규(대표 휴맥스)

‘벤처 천역 클럽’ 회원사들은 대부분 제조업체로 모두 비슷한 성장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 2000억을 올리면서 쌓은 벤처기업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번 ‘벤처 천역 클럽’ 출범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벤처 천역 클럽’이 발족식에 참여하신 여러 대표님과 경영진의 관심으로 벤처 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주변의 기업들을 돌아보면 창업해서 매출 1~2000억원까지 성장하는 것은 기업의 비전을 넘어 생존하기 위한 동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레나 그 이후에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웬만큼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창업과 생존의 열정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1~2000억원의 단계를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벤처 천역 클럽’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벤처기업과 벤처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처, 새로운 도약단계로 진입

— ‘벤처 천억 클럽’ 출범에 부쳐

창업 초기단계의 어려움을 딛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는 벤처기업들. 녹록지 않은 경쟁시장에서 벤처기업의 매출 1000억원 달성은 술한 단계의 고비와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한 성공 신호탄임과 동시에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 단계의 진입을 의미한다.

글_ 현영석(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 결과가 신속하게 제품에 반영되고 기술혁신 촉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이 뚜렷하게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성공사례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다.

순이익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백억 달러 클럽’ 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제조업체 중 아시아에서는 2004년 삼성전자와 도요타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반갑게도 우리나라 역시 지난 4월 25일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린 대표적 벤처기업 78개사로 구성된 ‘벤처 천억 클럽’ 을 출범시켰다. 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지 10여 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벤처기업계에서 천억 클럽이 출현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천억 클럽은 고진감래의 대표적 사례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그간 술한 우여곡절에도 굴하지 않고 꺾끗한 10여 년 역사와 함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이 노력에 화답하듯 기존의 벤처기업들이 성장세를 차츰 회복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벤처기업들도 속속 창립되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그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이라면 오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해서 초기단계의 어려움을 지나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기 마련이다. 이후에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위한 판매는 물론 자금조달, 조직관리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매출 1000억원 달성은 이러한 여러 단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 벤처기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한편 비약으로 새로운 도약 단계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억 클럽은 회원사들의 친목을 넘어 향후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문제 해결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후발 벤처기업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처럼’ 벤처 재도약을 선도하길

벤처기업의 성공비결은 첫째가 경영력, 둘째도 경영력, 셋째, 넷째도 경영력, 그 다음 다섯째가 시장수요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천억 클럽에 가입한 벤처기업가들은 경영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축하와 찬사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벤처기업, 특히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천억 클럽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그 기대의 첫째는 1000억 매출의 벤처기업들이 순이익 10조원에 달하는 ‘백억 달러 클럽’으로 발전하여 우리 경제를 한층 발전시키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전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둘째는 고용창출 문제이다.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대기업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벤처 천억 클럽이 앞장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 특히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문제는 매우 간절하고 또 절박하기도 하다.

셋째는 벤처기업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상장기업을 이용한 기업이익의 편취, 상속세 탈루와 같은 탈법이나 불법을 벗어나 준법과 공정한 경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존경받는 부자의 표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에서 상속세 인하 움직임에 스스로 재동을 걸고 나선 존경받는 벤처기업가 빌 게이츠를 우리는 한국에서도 만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천억 클럽에 가입한 벤처기업들이 창업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처음처럼’의 자세를 상기하며 더욱 발전해 앞으로보다 많은 이들이 벤처기업에 투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좋은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빙! 2006 한국의 10대 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05년 결산을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벤처기업 수는 모두 78곳. 이들 매출액을 합산하면 13조 7916억원에 이르는 액수로 국내 그룹에서 1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코노미플러스>가 D&B코리아와 함께 총 1431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외형(매출액)과 손익(경상이익), 규모(총자산) 등 3대 잣대로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휴맥스·엔에이치엔·넥슨·엠텍버전·메디슨·세원씨에스·디엠에스·코아로직·네패스·케이씨텍 등이 2006년 한국 10대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출액 1위는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제조전문기업 휴맥스(6181억원)가 차지해 2005년에 이어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2004년 1위를 차지했던 MP3플레이어 생산업체인 레인콤(4394억원)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경상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도 매출액에서는 2위에 올랐다. 이어 LCD용 백라이트유닛 전문기업 디에스엘시디(3768억원),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엔투버(3624원), 인터넷검색 및 게임서비스기업 엔에이치엔(3575억원) 순이었다. 엔에이치엔은 영업이익 부문에서 전년 대비 76% 성장한 1314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 분야 1위로 등극했다. **자료출처** : 이코노미플러스

한국 100대 벤처기업 규모 추이

